

# 케이팝의 남성성과 트랜스내셔널리티의 불/가능성

허윤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목차

- 1 들어가며
- 2 다양한 남성성/들과 케이팝 규범성(K-pop normativity)
- 3 힙합의 남성성과 가부장 되기의 진정성
- 4 이민자로서 소수자 남성성과 아시안의 발화 위치
- 5 무해한 케이팝을 넘어서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9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케이팝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거듭나면서 케이팝이 재현하는 남성성 역시 트랜스내셔널하게 발신되고 있다. 잘 훈련되고 통제된 마른 몸으로 대표되는 케이팝 아이돌의 몸은 세계 시장에서 귀여운 남성성으로 독해된다. 그러나 한국의 아이돌은 귀여운 신체에 잘 혼용된 젠더 규범이 체현되면서 완성된다. 즉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혼성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케이팝 아이돌이었던 박재범의 설화 사건은 이 경계에서 충돌하는 케이팝의 좌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후 한국에 복귀한 박재범이 남성연대와 진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힙합 아티스트가 되었다는 점은 미국에서 성장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맞물려 이해될 수 있다. 소수인종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과잉 수행함으로써 주체로 거듭나고, 이는 힙합의 남성성 서사와 성공적으로 결합된다. 그런데 소수자로서 박재범의 행보는 케이팝 산업과 충돌한다. BLM 운동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인종차별 문제를 고발한다. 이러한 방식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케이팝의 규범과 충돌하면서 여러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케이팝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일종의 ‘모델 아시아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러한 규범성과 소수자성의 길항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국문핵심어: 케이팝, 남성성, 힙합, 트랜스내셔널리티, 마이너리티

## 1 들어가며

BTS가 빌보드 핫100 차트의 정상을 차지하고, 그래미어워즈에서 공연을 하는 등 해외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케이팝은 한국을 넘어선 문화상품이 되었다.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대중음악 시장에서 아시아인이 그래미와 빌보드에 오르내리는 자체가 특별한 사건이며, ‘아메리칸 드림’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미국의 대중문화 시장에서 아시아인 배우, 가수, 기획자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현상과 맞물려 확산되었다.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이 감독

상을 수상하고 이주 한인을 다룬 「미나리」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대중문화 장에서 아시안계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이제 케이팝 가수들은 「엘렌쇼」나 「굿모닝아메리카」 등의 방송에서 전세계의 팬을 향해 한국어로 된 음악을 발신한다. 외국인들은 케이팝을 경유해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공부한다. 본격적으로 세계시장(미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영어로 노래를 발표하기도 한다. BTS는 「Dynamite」, 「Butter」 등의 영어곡을 빌보드 차트 순위에 올려놓았고 케이팝을 대표하는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샤이니, NCT, EXO 등의 멤버를 조합한 SuperM(이하 ‘슈퍼엠’)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꾀했다.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나선 슈퍼엠은 한복을 변형한 디자인의 의상을 입고 스모키한 메이크업을 한 채 무대에 올랐다. 미국인들의 눈에 귀여하게 보이는 이들의 자로 젠더한 군무와 잘 짜여진 구성의 케이팝다움은 한국적인 것으로서의 아이돌다움과 트랜스내셔널 문화상품으로서의 케이팝의 이중구조를 질문하게 한다.

해외 시장에서 ‘케이팝’(케이와 K-POP을 합성한 단어로, 케이팝을 조롱할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불릴 만큼, 케이팝 아이들은 남성성을 위반하거나 훼손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케이팝 아이들은 짙은 화장에 딱 붙는 바지, 세심하게 손질한 머리와 눈썹 등 외모를 관리하고, 깡마른 몸을 유지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과는 거리가 있는 새로운 남성성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케이팝이 재현하는 아시아 남성의 신체가 서구 중심으로 형성된 남성성의 규범에서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케이팝의 귀어함은 수용자, 즉 팬덤의 적극적인 독해와 참여를 통해서 완성된다. 케이팝 아이돌이 재현하는 소수자성이나 BL(Boys’ Love) 커플링 등은 해외시장에서 그룹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팬덤을 모으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다양성을 가시화하고 젠더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을 가능하게 하기도 했다.<sup>1</sup> 그런데 이는 백인-이성애자-비장애인을 중심

1 케이팝의 귀어함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연혜원 기획, 『귀어돌로지』, 오월의봄, 2021, 7-65쪽 참조. 케이팝 장에서 귀어 팬덤 당사자의 활동과 해외 시장에서의 해석 등을 지적하는 이 책에서 케이팝은 귀어한 상상력을 배태한 실천이자 팬덤의 적극적인 해석노동을 통해 완성되는 해석의 공동체가 된다. 케이팝의 잘 직조된 퍼포먼스와 다양성은 귀어 팬덤의 해석과 만나 풍성한 의미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지점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은 산업으로서의 케이팝과 개인으로서의 케이팝 아이돌 사이의 간극이다.

으로 구성된 정상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기도 했다. ‘케이팝’이라는 호명에는 서양과 동양의 위계적 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케이팝의 인기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도전이나 승리로 읽힐 수도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케이팝의 남성성이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맺는 관계다. 미국이나 유럽의 눈에는 쿼어하게 보이는 케이팝 아이돌의 특징은 케이팝 규범성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다. 즉 케이팝 장 안에서는 쿼어함이 곧 헤게모니인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케이팝 남성성은 하이브리드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메이크업과 패션 등에 관심을 갖고, 다이어트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남성성은 새롭게 등장한 일련의 경향을 대표한다. 패션 아이콘으로 거듭난 남성 아이돌은 팬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기꺼이 다정한 말투와 행동, 애교까지 수행한다. 이러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군 복무를 통한 재남성화와 직면한다. 군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아이들에게는 대중의 찬사와 관심이 뒤따른다. 과거 군입대가 남자아이들의 적으로 여겨졌던 것과 달리, 아이돌의 활동수명이 길어지면서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군 생활이 케이팝 장에서 자산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살펴보면, 케이팝이 수행하는(performative) 남성성의 복잡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본고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안적 남성성으로 떠오른 케이팝의 남성성을 고찰함으로써 케이팝의 트랜스내셔널리티를 검토하고자 한다. 케이팝의 기호 K가 민족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이동해나갈 때, 한국의 남성성이라는 젠더 규범이 전유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케이팝 아이돌에서 힙합 아티스트이자 힙합 레이블의 사장으로 거듭난 박재범이다. 케이팝 규범성에서 가장 먼 것처럼 보이는 박재범을 선택한 것은 그의 경계성 때문이다. 그는 민족국가의 경계, 아이돌과 아티스트의 경계, 남성성의 경계 등을 체현한다. 케이팝 규범성과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박재범은 호모포빅하면서 동시에 쿼어하고, 내셔널하면서 동시에 트랜스내셔널하다. 케이팝 아이돌 박재범이 Jay Park이라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한국(인)다움’을 부정하고 승인하는 과정은 젠더 역학과 맞물려 벌어진다. 박재범이라는 문화적 재현이 남성성과 맺는 관계를 통해 케이팝의 남성성/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족국가와 트랜스내셔널이 어떻게 교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케이팝

의 경계와 접촉지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2 다양한 남성성/들과 케이팝 규범성(K-pop normativity)

케이팝과 남성성이 맺는 관계는 실상 복잡하다. 다정하고 상냥하며 예쁜 외모를 내세우는 아이돌이 있으면, 남성의 신체를 가시화, 대상화하는 방식의 아이돌도 있다. 색다른 연출과 퍼포먼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남성성을 기획, 실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000년대 후반 짐승들의 등장은 ‘어리고 예쁜 소년’이라는 아이돌의 표준값에 성적 매력이라는 벡터를 더한 것이었다. 2008년 데뷔한 2PM은 아크로바틱을 결합한 과격한 안무와 근육질의 남성 신체를 선보이며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남성성을 전면에 내세웠다.<sup>2</sup> 1990년대 성 해방을 주장했던 가수 박진영이 제작한 이 남성 아이돌 그룹은 “그녀의 입술은 맛있어 그녀의 다리는 멋져”라며 날 것의 남성성을 연출했다. 데뷔곡 「10점 만점의 10점」은 젊은 남성이 ‘그녀’의 외모에 점수를 매기는 내용이다. 스크래치를 한 헤어스타일이나 수영장에서 촬영한 뮤직비디오 역시 악동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비키니 차림의 여성에게 눈을 돌리며 쫓아가는 남자 아이돌의 등장이다. 같은 시기 데뷔한 SM 아이돌 샤이니가 파스텔톤의 스키니진을 입고 “누난 너무 예뵐”을 속삭인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2PM의 초창기 이미지는 여자를 좋아하는 악동이었다. 케이블 TV의 예능 프로그램 「똔다! 그녀 3」(MBC every1, 2009~2009)는 당시 신인 아이돌이었던 2PM이 매회 초대되는 여성 게스트에게 선택받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구조로 이루어진 버라이어티쇼였다. 노래와 춤, 고백의 말 등과 같은 개인기를 통해 매력을 어필하면, 여성 게스트가 한 멤버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연애 구도를 만드는 예능 성격상 팬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만, 사실상 여성 게스트의 선택은 부차적이다. 멤버들 간의 질투나 경쟁과 같은 대립 구도가 팬들의 눈을 사로

---

2 김수아, 「남성 아이돌 스타의 남성성 재현과 성인 여성 팬덤의 소비 방식 구성」,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9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1, 23-33쪽. 김수아는 2PM이 미디어를 통해 상상되어 온 중고생 혹은 청소년 남성의 이미지를 재현하며 데뷔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성숙과 미성숙의 경계에 있는 남성성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한다.

잡기 때문이다. 결국 이 라이벌 구도를 통해서 강화되는 것은 멤버들 간의 교류인 것이다. 이브 세즈웁은 남성들의 사회에서는 동성친화적 욕망과 가부장적 권력의 유지 및 이양을 위한 구조가 연관되어 있지만, 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여성의 거래를 남성들 간의 동성애적 관계를 금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이 남성 동성사회성(homosocial)에는 남성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한 여자를 서로 교환하는 이성애정상성이 필요하다. 여성이 없이는 남성들 사이의 연대가 자칫 동성애(homosexual)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자다운 남자들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두 남성 사이의 교환거래다.<sup>3</sup>

남성동성사회의 친밀감이나 이에 기반한 남-남 커플링은 2PM의 인기 비결이기도 했다. 2PM의 예능 「와일드 바니」(Mnet, 2009)는 아이돌이 아니라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가서 아이돌 규범을 어기고 일탈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화부터 매니저의 눈을 피해 숙소를 도망치는 모습이 등장하고 섹시 컨셉의 화보나 몰래 카메라, 걸그룹 댄스 등을 B급 감성으로 펼쳐낸다. 망가지는 것을 권장하는 프로그램 기획은 아이돌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2PM의 자유로움과 평범함은 동성 멤버들 사이의 관계성에 기반했다. 남성 간 친밀성은 케이팝 아이돌 그룹의 인기를 견인하는 요소로 꼽힌다. ‘비즈니스 게이 퍼포먼스’라 불릴 만큼, 남성 간 친밀성은 주요한 마케팅 전략이 되기도 한다. 남성 아이돌은 팬들이 팬픽이나 RPS(Real Person Slash)를 창작할 수 있을 만큼 친밀해야 하고, 가족 같은 끈끈함을 보여주어야 한다.<sup>4</sup> 이러한 마케팅 전략이나 재현은 동성 간 친밀성이 의심받지 않을 만큼, 동성애가 비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아이돌다움을 넘나드는 남성미로 인기를 끌었던 2PM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당시 그룹 리더 박재범이었다. 한국의 아이돌 문화와 관습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의 솔직함은 정련된 다른 아이돌과는 달랐다. 핑크색 티셔

3 Eve Kosofsky Sedgwick, *Between Me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pp.1-27.

4 RPS 기반의 팬픽과 남성 아이돌 커플링과 관련해서는 류진희, 「팬픽: 동성(성)에 서사의 여성 공간」, 『여성문학연구』 제2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163-184쪽.

츠나 멤버들 간의 스킨십 등을 어색해하던 그는 엉뚱한 행동과 발언으로 인기를 끌었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충실하지만, 아이돌 규범에서는 새로웠던 박재범의 등장은 케이팝 남성성의 혼종성을 보여준다. 남성 역시 성적으로 대상화될 수 있음을 보다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 전환이 “Korean is gay”와 결합되었을 때, 박재범이 건드린 것은 민족국가 내부의 호모포비아였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민족국가의 경계를 건드린 이방인이 된 셈이다.<sup>5</sup>

남성 아이돌 그룹의 의상과 메이크업 등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10대 미국인은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연습을 강제하는 한국식 연습생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케이팝 아이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데뷔 전 SNS에서 친구와 나눈 대화에 등장한 “Korean is gay. I hate Korean.”이라는 말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이내 수백 개의 기사로 옮겨졌다. 이를 계기로 박재범은 아이돌로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칭해졌다. 이는 아이돌이 단순히 무대 위의 퍼포먼스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비하 논란으로 변진 이 발언으로, 박재범은 인기 아이돌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되었다. 문제의 발언이 보도되자 대중은 “한국에 돈 벌러 온 양키는 집에 돌아가라”, “군대에라도 갔다 오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활동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한국에서 통약 가능한 시민성은 군대라는 남성성을 경유해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를 옹호하거나 이해하려는 시도는 ‘철없는 빠순이’의 맹목적인 사랑으로 치부되었다.

문화적 마이너리티로서의 팬덤이 주류문화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집단 정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분석은 국가 간 경계의 문제를 가시화한다. 팬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동체이며, 사회에 비치는 인상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격적 교정 과정이 포함된다. 팬덤이 아이들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교정하여 사회통념이 긍정적으로 여기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sup>6</sup> ‘빠순이’라

5 이 사건을 민족주의 역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은 정민우, 「초/국적 시대 민족주의 정치학과 대중문화의 역학-‘재범 사건’의 의미 구성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18권 3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0, 35-70쪽.

6 이혜수, 「한국 팬덤의 민족주의 정체성 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제22권 2호,

는 멸칭이 붙을 만큼, 문화적 마이너리티였던 케이팝 팬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주류문화의 규범을 승인하고 지켜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박재범을 향해 쏟아진 비판이나 사이버불링 등은 공격적 교정 과정을 보여주었다. 악동을 연기하면서 남성성을 과시하는 연출은 가능하지만, 정상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케이팝 산업의 특징은 JYP의 프로듀서 박진영이 강조하는 인성 교육과도 연결된다. 케이팝 아이들은 춤과 노래뿐 아니라 인사법과 말투 등 인성까지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실, 성실, 겸손’이라는 인성 교육은 케이팝 아이들에 내재한 규범성을 보여준다.<sup>7</sup>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임하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규범은 자동으로 90도로 인사하는 법을 몸에 익히고 겸손한 태도로 팬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범의 형식과 계속 트러블을 일으켰던 박재범은 케이팝 아이들답지 않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고, 이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기도 한 셈이다.

### 3 힙합의 남성성과 가부장 퇴기의 진정성

‘제2의 유승준’이라 불릴 만큼 전국민적인 비난을 받았던 박재범이 약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충실히 수행한 덕분이다. 여기에는 박재범이 추구하는 힙합의 남성성과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좋은 남자의 가치기준이 맞아 떨어진 것이 주효했다. 흑인문화를 준거집단으로 둔 힙합 문화가 강조하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 친구들에 대한 의리 등은 한국의 남성성 규범에서도 유효했던 것이다. 힙합 연구자들은 힙합이 백인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저항하기 위해 폭력성과 초남성성의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1970년대 흑인 청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서로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던 힙합은 백인 주류문화에 대한 저항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자기 서사, 자수성가한 흑인의 이미지, 뽀내는 스웱 정신, 디스코

동양사회사상학회, 2019, 237-268쪽.

7 황혜진, 「박진영 밝힌 JYP 인성교육 “진실 성실 겸손 세 가지 가치 지켜야”」, 『뉴스엔』, 2017.11.29.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711290810450410](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711290810450410)



가득찬 배틀랩 등 힙합의 특징은 일종의 대항문화였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과 쿨한 포즈는 현실 세계에서 절대적 강자인 백인 남성성과 굴절한 결과 생겨난다.<sup>8</sup> 지배 계급에 대항하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남성성을 획득하고 모방해야 하는 피지배 계급 남성들은 힙합 음악을 통해서 자신들이 성공할 수 있는 영역과 만났다. 문화연구자 트리시아 로즈는 힙합 음악이 흑인 사회 내의 계급 이동성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지적한다. 흑인 남성은 힙합 음악을 통해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9</sup> 가난한 흑인 커뮤니티에서 성장해서 갱스터가 될 뻔했던 남성 청년이 음악을 통해 미국인들의 우상이 되는 과정은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서사화된다. 이러한 자수성가 스토리는 한국 힙합에서도 유사하게 성립한다.

홍대의 언더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한국 힙합이 미디어를 통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강조된 것은 자신이 직접 가사를 쓰는 진정성이다. 힙합 레이블 일리어네어의 사장 도끼는 기획사 음악에 대한 대척점으로 인디 정신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하는 이야기는 ‘진짜’라는 점을 강조한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 (real recognize real)’는 그의 프레이즈는 특유의 스웱 문화를 진정성의 서사로 만들었다. 자신이 번 돈을 자랑하면서 성공을 과시하는 가사가 한국 힙합의 특징이 된 것이다.<sup>10</sup> 한국에서 랩퍼들의 스웱 문화는 경제적 어려움을 자신의 맨몸으로 극복한 성공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으며, 종종 아버지에 대한 호소와 인정투쟁을 포함한다.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남성 주체의 성장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오이디푸스 서사로 설명되어 왔다. 아버지로 상징되는 기성세대, 상징질서와의 대결을 통해 승리해야만 아들/청년은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의 ‘아버지 살해’는 아들의 성장과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피식민 국가의 경우, 아버지 살해의 경험이 박탈당한 채로 근대화된다. 피지배 인종이나 피지배 계급의 남성들은 백인 남성들의 공동체처럼 나눠 가

8 김봉현, 『힙합: 블랙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는가』, 글항아리, 2014, 206-247쪽.

9 Tricia Rose, *Black Noise: Rap Music and Black Culture in Contemporary America*, Wesleyan University Press, 1994, pp.183-186.

10 김영대, 「아이돌 힙합의 이유」, 『아이돌로지』, 2014.8.12. <https://idology.kr/1150>

질 권력이 없었다. 벨 후크스는 이러한 흑인 남성성을 분석하면서 ‘플랜테이션 가부장제(plantation patriarchy)’라고 명명한 바 있다. 흑인 남성들은 자유를 획득하고, 흑인 여성을 보호하는 것으로써 가부장이 되는 방식으로 사회화되었다는 것이다. 벨 후크스는 여기서 흑인 남성들은 백인들에게 침탈당한 자신들의 남성적 권력을 가부장제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왜곡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흑인 남성 사이에서 오히려 남성다움과 경제적 능력의 연결이 강화되고, 소수자 남성일수록 남성다움이라는 규범적 질서에 더 민감하다는 것이다.<sup>11</sup>

이처럼 피식민 남성성은 제국의 남성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다. 피식민 국가의 남성 주체는 식민 이후 국민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경험을 여성화시키고, 당시 나라를 빼앗긴 전근대 남성들의 무능력으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함으로써 구성된다.<sup>12</sup> 즉 식민지인일수록 제국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모방하여 수행함으로써 능력 있는 남성 주체로 거듭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인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젠더 규범을 형성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아버지 살해는 언제나 달성될 수 없는 서사였다. 근대의 도래와 더불어 아버지 살해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조선이라는 구질서를 해체한 것은 제국 일본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아버지였으며, 해방 후에는 미국의 반공 우산 아래로 포섭되었다. 이러한 아버지 교체의 서사는 아버지 살해가 아니라 보다 더 강력한 아버지에 대한 회구로 이어진다. 박정희에 대한 숭배가 한국사회에서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 역시 초남성적 아버지에 대한 열망 때문인 것이다.<sup>13</sup>

이러한 문화적 기억의 원형을 힙합 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 힙합 서사에서는 아버지 살해 대신 아버지로부터의 승인 혹은 가부장 퇴기의 세계관이 두드러진다. 래퍼 씬디는 2018년 발표한 「정진철(나의 삼촌 이름은)」은 노래를 통해 실종된 삼촌을 찾는다. 여성복 디자이너로 성공 가도를 달리다 사업 실패 후 실종된 삼촌과의 추억을 기록하면서, 그의 이름을 단조롭게 반복하는 이 노래는

11 bell hooks, *We real cool: Black men and masculinity*, Routledge, 2004, pp.1-14.

12 권김현영, 「민족주의 이념논쟁과 후기 식민 남성성」, 『문화과학』 제49호, 문학과학사, 2007, 39-54쪽.

13 허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 젠더 수행성 연구』, 역락, 2018, 55-90쪽.

다소간 주술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던 조카들을 살뜰하게 챙기던 다정한 삼촌의 실종과 가수로 성공한 삼디의 모습이 노래 위에서 자연스럽게 오버랩된다. 그는 이 노래를 발표한 뒤 얼마지 않아 삼촌과 재회했다. 아버지-삼촌-아들로 이어지는 부계혈통을 복원함으로써 가부장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힙합의 진정성 담론에서 중핵을 차지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 힙합과 케이팝은 공통분모를 갖는다. 부모님을 돕기 위해 케이팝 아이돌이 된 아들이 성공하여 부모와 가족, 친구들을 부양하는 식의 서사는 ‘의리 있는 좋은 남자’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송민호의 히트곡 「겁」은 가수로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는 서사다. 자신이 래퍼임을 증명하기 위해 송민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직접 끌고 온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생계부양자로서의 책임감과 남자다움이다.

멈추지 마라 아직 할 일 많아 / 뒷바라지하는 부모님의 사진봐 / 넌 동생들의 거울이자 가족들의 별 / 네가 잠을 줄여야만 / 그들이 편하게 숙면 // 야 이 병신아 티 좀내지마 / 마음 단단히 먹어 알아 외롭지만 / 견뎌내야 돼 / 눈물 흘리나 사내새끼가 / 뚝 그치고 다시 들어 책임감 // (중략)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 정답을 알려줘 / 어른이 되기엔 난 어리고 어려

—송민호, 「겁」(2016)

“어리고 어린” 남성 청년은 아버지에게 정답을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성공한 아이돌이 되어 가장 노릇을 하겠다는 송민호의 다짐은 절규하듯 외치는 ‘아버지’로 이어진다. 관객들의 합창으로 완성되는 ‘아버지’는 남성 청년의 성공 서사가 아버지에 대한 인정투쟁과 승인 구조에 있음을 보여준다. 송민호와 아이돌과 힙합의 접촉지대에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는 케이팝 장의 공통분모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재범 역시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한국에 와서 연습생이 되었다고 말할 만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누차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자수성가와 승인의

서사를 ‘희망’이라고 표현한다. 인종적, 계급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명은 박재범이 이후 자신의 서사에서 강조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사장으로서의 자부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등으로 이어진다.

센 척하면서 욕한다고 힙합이 아니다. 그보다는 스토리가 중요하다. 힙합은 가난한 흑인들의 계토에서 출발한 음악이다. 비보이, 디제잉, 랩이 모두 자기가 어떻게 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올라갔는지를 담아왔다.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힙합이다.<sup>14</sup>

2PM 탈퇴 이후 유튜브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박재범은 2010년 1년여 만에 영화 촬영을 이유로 한국에 들어온다. 이 영화에 출연한 계기 자체가 자신이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만든 비보이 크루 AOM(Art of Movement) 친구들과 함께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15</sup> 박재범은 자신의 아시아 팬미팅 투어나 각종 행사에 AOM을 동반하였으며, 평범한 20대였던 박재범의 친구들 역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는 AOM의 멤버였던 친구 차차 말론과 음악 작업을 시작했다. 2011년 발표된 그의 첫 솔로앨범 『Take a Deeper Look』을 지원한 것은 이미 힙합씬에서 인정받고 있던 랩퍼이자 박재범의 친구인 도끼였다. 그는 힙합 아티스트들과 교류하면서 ‘브로’들로 이루어진 남성연대를 구축하였으며, 문신과 술 등 남성다움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재현했다. 가족의 출생연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레이블의 엠블럼을 문신으로 새길 만큼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형제들/동료들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것이다.

2010년에는 차 바퀴를 갈고 / 한겨울 날씨 안에서 난 벌벌 떨었어  
2014년 AOMG 차렸고 / 여자들이 나를 보면 덜덜덜덜 떨어

14 박재범, 「ABOVE AND BEYOND」, 『W Korea』, 2015.8.17. <https://www.wkorea.com/2015/08/17/above-and-beyond-%EB%B0%95%EC%9E%AC%EB%B2%94-%EB%A1%9C%EA%BC%AC/>

15 박재범 인터뷰, 『인스타일』 2010년 9월호, 475쪽.

눈치 보고 살지 않길 / 의리 있는 남자되길  
돈은 좇아 가지마 / 금으로 된 내 앞길  
Always do what you feel / 언제나 자유롭길  
하지만 개념 있게 살고 / 예의도 지켜주길  
—박재범, 「evolution」 (2014)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쓰는 래퍼로 정체화하는 박재범은 『EVOLUTION』 (2014)에 실린 동명의 곡을 통해서 돈이 아니라 ‘의리 있는 남자’로 진화하겠다는 자신의 다짐을 꺼내놓는다. 같은 해 힙합 레이블 AOMG를 설립한 박재범은 작사와 작곡, 프로듀싱을 직접 시도하는 아티스트로 거듭났으며,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지원과 존중을 내세우면서 ‘의리 있는 남자’들의 공동체를 확장해나간다. 박재범은 AOMG와 HIGHER MUSIC 소속 가수들을 자신의 해외 투어에 동행시키고, 무료로 피쳐링 작업을 진행하는 등 힙합씬에 대한 증여를 계속한다. 이는 그가 인터뷰에서 자신의 회사 소속 아티스트들을 가족이나 식구 등으로 호명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7: 사실 일 관계이긴 하지만 아티스트로서 존중하고 사람으로서도 좋아하는 래퍼들이 뭉친 레이블이다. 소속 아티스트들이 계약에 따라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한식구가 되었다. 진심이 담긴 관계다.

2018: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보다는, 순수하게 재밌고 멋있는 뮤지션들이랑 함께 식구처럼 만들어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난 항상 나에 대한 자존감이 강하거든. 다들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니까 점점 회사에 대한 자신감도 붙더라. 그레이 형, 로꼬가 잘되기 전에, 쌤 디 형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나는 상상했었다. 열심히 잘하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겠구나. AOMG의 성공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렇게 막 놀랍거나 하지는 않다.<sup>16</sup>

16 박재범, 「락네이션 최초의 아시아 아티스트」, 『하이퍼비스트』, 2018.5.28., <https://hype->

AOMG에서 처음으로 음원차트 1위곡을 낸 로꼬의 성공 스토리 역시 박재범의 서사를 뒷받침한다. 위약금으로 전 소속사에 발이 묶여 있을 때, 박재범이 기꺼이 큰돈을 대신 지불해주었고, 로꼬가 AOMG에 와서 처음으로 발표한 곡 「감아」의 성공으로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17</sup> 자신의 성공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명분 있는 것’이라는 주장은 박재범의 노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후배를 양성하고 힙합씬의 파이 자체를 키웠다는 자부심은 공동체와 이웃 등에 대한 언급으로도 등장한다. 이는 힙합 음악이 커뮤니티에 대한 유대와 연대를 중심으로 한 장르라는 점을 보여준다.<sup>18</sup> 즉 ‘진짜’는 개인의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릎 꿇고 살 바엔 차라리 서서 난 죽어  
 나의 성공 내가 명분 있게 얻었지  
 그래서 고개 안 숙여  
 박재범, 「Worldwide」 (2015)

AOMG의 성공으로 박재범은 한 명의 아이돌 출신 스타에서 한국 음악 장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다. “어깨 위에 무게가 만만치 않아, 그래도 난 날아다녀, 나는 사장 아닌 리더”(「Toast」, 『Blue Tape』, Higher Music, 2020)라며 한국 힙합 씬에서 자신의 위치를 주장한다. 그는 AOMG와 관련된 인터뷰에서 매번 ‘진심’이나 ‘자존감, 자신감’ 등을 강조한다.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회사를 통해서 돈을 벌 생각은 없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식구처럼 만들어나가고 싶다”는 발언은 여러 형태로 박재범의 가사에 등장한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명성이 아니라 의리를 택한다는 남자다움이 그를 ‘제2의 유승준’에서 ‘재범이형’으로 만든 것이다.

beast.kr/2018/5/jay-park-soju-2-chainz-interview

17 김민재, 「‘해투3’ 로꼬 “박재범이 2억 빚 청산해줬다…‘감아’로 돈 다 갚아”」, 『아시아경제』, 2016.8.26.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82607093629868>

18 김봉현, 앞의 책, 18-24쪽.

진짜 힙합씬 구원하러온 것파더임.. 재범이형이 한국음악 수준 높여놨다고 생각한다 진짜. 내 기준에 콰이엇형이랑 같이 지금 한국 힙합씬에서 가장 존경해야할 두사람이라고 봄. 음악대하는 태도나 후배양성. 실력 등 모든게 빠지는게 없음<sup>19</sup>

확실히 재범이형이 2pm이 아니라 aomg세우면서부터 바닥에서 올라가는게 보여서 남자들이 볼 때 이뤄내는 과정이 보여서 롤모델 삼고 싶은 사람임 ㅎㅎ<sup>20</sup>

박재범이 힙합 씬에서 인정받는 ‘형’이 되는 과정은 힙합씬의 ‘대부’ 역할과 직결된다. 아티스트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공정한 계약을 하고 제대로 대우를 해주면서 회사를 통해서 돈을 벌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박재범은 바람직한 가부장으로 거듭났다. 이를 통해 한때 박재범을 향한 수식어였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말은 사라졌다. 그의 진정성이 대중들에게 수용된 것이다. 박재범을 수용하는 대중들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그는 “남자들이 볼 때” “롤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이 된다. 남성들의 인정이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된 것이다. 대중음악의 진정성은 수용자 차원에서 담론화된다는 지적은 이런 점에서 성립한다. 박재범의 남자다움은 아이돌에서 힙합으로 넘어가는 매체 전환 과정에서 등장한 일종의 상징적 가치이며, 수용적 가치를 얻는 데 중요한 것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얼마나 수행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즉 박재범은 남자다움을 통해서 진정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sup>21</sup>

---

19 박재범의 킬링벨스 영상에 달린 댓글, <https://www.youtube.com/watch?v=eYwmtI97iyE>

20 라디오 스타(2020.11.04. 방영분) 유튜브 클립에 달린 댓글, <https://www.youtube.com/watch?v=cTqcSvPR8Qg>

21 송화숙은 진정성이 일종의 상징적 가치이며, 진정성의 유무가 중요한 차이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음악을 감각하는 방식의 차이가 진정성 담론을 구성한다고 지적한다. 송화숙, 「대중음악에서의 진정성(Authenticity) 개념」, 『대중서사연구』 제21호, 대중서사학회, 2009, 345-370쪽.

#### 4 이민자로서 소수자 남성성과 아시안의 발화 위치

인종적 탈식민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초남성적 헤게모니는 힙합의 남성성으로 전유되었고, 인종과 계급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부각되었다. 사회 비판 의식을 배태한 힙합은 백인 부르주아 남성의 헤게모니에 대항하기 위해 생겨난 일종의 대항 문화이자 인종적 타자인 흑인이 주체의 자리를 점유하는 장르인 것이다. 이 남성성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은 한국계 미국인 박재범에게도 핵심적인 요소였다.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흑인 남성들이 야만성에 가까울지라도 남성성을 인정받고 있었다면, 아시안 남성은 여성적이거나 비남성적인 존재로 취급되었다. 아시아 남성들은 “흑인과 백인 남성들보다 일반적으로 덜 성적이며 더 총명하다”거나 “일 중독자, 컴퓨터광, 무술가, 갠단 혹은 아시아의 신비한 존재” 등으로 전형화된다.<sup>22</sup> 이러한 전형화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오히려 소수인종 남성들은 남성다움과 남성끼리의 연대를 강조한다.

한국계 미국인인 박재범은 흑인,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 친구들과 힙합과 비보이 댄스 등을 통해 남성 공동체를 형성해나갔다. AOMG의 출발점이기도 한 AOM은 박재범을 비롯한 유색인종 청소년들의 비보잉 클럽이었다. 힙합이 흑인들의 음악으로 장르화되었기 때문에 아시아인이 미국의 힙합신에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케이팝 아이돌 출신의 박재범이 미국 시장에서 한국인과 아시안을 대표재현하게 되었다. 2017년 박재범은 미국을 대표하는 힙합 레이블 락네이션과 계약한 최초의 아시안계 아티스트가 되었다. 그는 락네이션과의 계약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고향, 한국, 아시안계 미국인,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된 사람들의 승리이자 헌신과 정직, 진정성의 승리라고 표현했다.<sup>23</sup> 인터뷰에서도 “내가 동양인 그리고 한국 힙합 신 대표로서 이 큰 세계에 들어가 많은 사람을

22 김혜정, 「서구 속의 동아시아 남성성-영국에 거주하는 한국 남성 이민자들의 남성정체성 연구」, 『공간과 사회』 제26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06, 229-232쪽.

23 This is a win for the Town/This is a win for Korea / This is a win for Asian Americans / This is a win for the overlooked and underappreciated / This is a win for genuine ppl who look out for their ppl / This is a win for hard work and dedication/This is a win for honesty and authenticity. 박재범 인스타그램, 2017.7.21.



대표하는 거니까. 동양인의 멋, 한국인의 멋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24</sup> 트랜스내셔널한 경계에 있지만 미국 음악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된 셈이다. 이후 2019년 스미소니언의 게임체인저상(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경계를 뛰어넘었다는 의미)을 수상하고, 락네이션의 대표 제이지가 만든 음악축제인 ‘Made In America’(2018), 아시아계 아티스트들의 공연인 ‘Identity LA’(2018) 등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행보를 만들어가고 있다.

박재범은 인종적 특수성이나 민족적 특수성을 자부심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미국 진출을 시도한다. 박재범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싱글은 「SOJU」였으며, 뮤직비디오는 케이타운의 식당 등을 배경으로 촬영되었다.<sup>25</sup> 흑인과 아시안 등의 유색인종들이 등장하는 뮤직비디오는 힙합의 전형성과 한국의 특수성이 결합되어 키치한 영상으로 완성되었다. 그의 미국 데뷔를 다룬 다큐멘터리 「CHOSEN 1」에서도 이 지점을 강조했다. 아시아계 미국인이 흑인 중심인 힙합 음악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박재범의 행보가 아시안 사회의 전망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재범의 행보는 인종으로서의 아시안이 미국 대중음악 시장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를 시험해보는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Because y'all my brothers / My actions reflect y'all / So I'll never  
 move like a sucker // I'm slipping I'm falling I can't get up / I know  
 you'll catch me support me  
 And help me get up/Yeah this bullshit's whatever / I'll show nothing  
 but love / Bitches money fame is cool/But it means nothing above /  
 So let's enjoy it while it lasts

24 박재범, 「락네이션 최초의 아시아 아티스트」, 『하이프비스트』, 2018.5.28., <https://hype-beast.kr/2018/5/jay-park-soju-2-chainz-interview>

25 이러한 지역성은 힙합 문화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꼽히기도 한다. 흑인들이 계도화된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에서 출발해서, 출신 지역을 자신의 스타일로 확립해가는 것이 힙합 문화이기도 한 것이다. 에덤 브래들리, 김봉현 외 역, 『힙합의 시학』, 글항아리, 2007, 186-187쪽.

너희 모두는 내 형제들이고 / 내 행동이 너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 /  
그래서 나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지 // 나는 미끄러지고 추락하고 일  
어날 수가 없어 / 나는 알아 네가 나를 도와주고 일으켜줄 것을 / 무슨  
일이든지 / 나는 사랑만 줄게 / 여자 돈 명예는 멋지지 / 그렇지만 그 이  
상의 의미는 없어 / 그러니 있는 동안 즐기자

Jay Park, 「Legacy」(feat. Gifted Gab & Shelby)(2019)

「Legacy」는 미국 가수들의 피쳐링으로 이루어진 영어곡이다. 인종차별과 형제애를 이야기하는 이 노래에서 박재범은 “너희 모두가 내 형제들이고 내 행동이 너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나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자신의 대표성에 대한 고민이자 유색 인종 사이의 유대에 대한 강조다. 이는 미국사회에서 인종적 소수자인 아시안계 역시 흑인과 마찬가지로의 사회적 부조리와 억압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재범은 2018년 미국 프로모션 당시 출연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이민자라고 느낀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돌봐줘야 한다. 너는 내 형제다. 나는 너의 인종이나 피부색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는 프리스타일 랩을 한다.<sup>26</sup> 여기서 그는 소수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자신과 청취자들, 그 자리의 디제이 등을 ‘형제’로 호명한다. 이 형제의 정체성은 미국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의 연대를 의미한다.

박재범은 흑인민권운동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적극적인 발언을 이어갔다.<sup>27</sup> 조지 플로이드 총격 사망 사건 당시 추도 글을 올린 것은 물론이고, 그가 사장인 힙합 레이블 Higher Music은 Black Lives Matter(이후 ‘BLM’) 운동에 약 2만 불을 기부했으며, Black Out Tuesday에 참

---

26 “Born in this country, but I’m feeling like a immigrant / So we gotta look out for one another / You’re my brother, I don’t care about your race or color”, 「Sway in the morning」, 2018.5.25.

27 박재범은 BLM 운동뿐 아니라 태국 시민들의 시위를 지지하거나(2020.10.17.)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는 등 전세계의 민권 운동에 대해 발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이후 심화된 아시안에 대한 혐오와 공격을 비판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하기 위해 음원 발매일을 연기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BLM 운동에 아시안계 미국인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과도 맞물린다. 한국계 미국인인 배우 산드라오는 2020년 에미상 시상식에 한글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새긴 점퍼를 입고 출석하여 화제가 되었다. 한국 교민 사회도 BLM 시위에 참여하였다.<sup>28</sup> 아시안과 흑인의 연대는 최근 강화되는 인종차별과 혐오범죄에 대항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흑인과 아시안이 백인 중심의 미국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바이러스Chinese virus’는 인종적 긴장과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다.”<sup>29</sup>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후 아시안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강화되고 있는 서구 사회에 대해 한국계 미국인인 박재범, 에릭남, 티파니(소녀시대) 등은 소수자 정체성을 바탕으로 인종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한다. 박재범은 스포티파이의 AAPI(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유산의 달 캠페인인 #StopAsianHate 광고에 참여하고 자신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에릭남은 애플리케이션 한국인 여성 총격사건 직후 타임지를 통해 미국에서 아시안으로 산다는 문제의식을 가시화했다. ‘모범적인 소수자 시민’ 모델로 일컬어진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내면화해야 했던 일상화된 인종주의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sup>30</sup>

그러나 케이팝 가수들의 BLM 지지는 한국 안팎으로 상반된 효과를 발생시켰다. BLM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케이팝 팬들은 케이팝 가수들에게 BLM과 관련된 의견을 표명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케이팝의 존재 자체가 백인 중심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sup>31</sup> 이에 한국의 커뮤니티에서는 논

---

28 Asians for Black Lives(<https://www.asianamericanadvocacyfund.org/asians-for-black-lives>)와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29 “‘We Need Hope & Unity More Than Ever’: Asian-American Artists Weigh in on Coronavirus Impact”, *Bilboard.com*, 2020.4.2.

30 Eric Nam, “If You’re Surprised by th Anti-Asian Viloence in Atlanta, You haven’t been listening. It’s time to hear our voices”, *Time*, March 19, 2020, <https://time.com/5948226/eric-nam-anti-asian-racism-atlanta/>

31 이지행, 「서구미디어의 지배담론에 대한 방탄소년단 글로벌 팬덤의 대항담론적 실천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5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79-114쪽.

쟁이 일어났다. “왜 한국인 가수한테 지지를 바라는지 모르겠다”, “요구가 끝도 없을 것이다”와 같은 댓글에 이어 “정치량은 안 썩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등장한다. 대표적인 여초 커뮤니티인 다음카페 〈소울 드레서〉에서는 에릭남이 트럼프를 비판하며 바이든을 지지하고 나서자 에릭남도 어쩔 수 없는 미국인이라며, 한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비판했다. ‘1가정 1에릭남’이라고 불릴 만큼, 여초 커뮤니티에서 인기가 많았던 그는 BLM이나 인종주의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호감도를 잃기도 했다. 즉 미국의 케이팝 팬덤이 소수자 운동을 지지하고, 트럼프의 행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정치적 유명세를 가진 반면, 한국의 케이팝 팬덤은 이러한 정치성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다.<sup>32</sup>

한국의 케이팝 팬덤은 BLM이나 퀴어퍼레이드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다. 케이팝이 해외 시장에서 소수자의 표상으로서 정치적인 존재로 거듭났지만,<sup>33</sup> 케이팝을 배태한 한국의 아이돌 문화는 다른 것이다. 때문에 케이팝에 대한 해석은 ‘우리 한국인’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해외 팬이 많은 케이팝 그룹들이 한복을 변형한 디자인의 옷을 입는다든지 한국무용을 무대에서 선보이는 것 등은 한국 팬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 케이팝에 대한 자부심은 민족주의 결합되어 파급력을 갖는다. 스포츠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서구에 의해 인정받고 증명된 ‘영웅’은 식민지 국가였던 한국의 열등감을 해소시키고, ‘애국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용된다. 국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구성원

32 김수아 역시 이러한 현상을 지적하면서 ‘파편화된 팬덤’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팬덤이 단일한 공동체가 아니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는 복합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최근 케이팝 팬덤의 역능에 관한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부작용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수아, 「소비자-팬덤과 팬덤의 문화 정치」, 『여성문학연구』 제5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0-48쪽.

33 2020년 6월 21일 미국 뉴욕주의 하원의원 오카시오-코르테즈가 트위터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10대들과 케이팝 팬덤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선거 유세장의 티켓을 예매한 후, 불참함으로써 유세장을 텅 비게 만들었다. BLM 운동, 코로나 19에 대한 대책 등으로 미국 내에서 비판받고 있던 트럼프를 웃음거리로 만든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케이팝 팬덤이 트럼프로 표상되는 보수 정치에 반대하며 소수자와 다양성의 가치를 증명한 것으로 기록된다. 소수자성에 대한 성찰 없이, 케이팝을 적극적으로 미디어에 홍보하고, 미국의 미디어 전략을 비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다.<sup>34</sup> 해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케이팝은 그 자체로 한국의 이름을 알리는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고, 케이팝의 K는 음식, 화장품, 문학 등 분야를 막론하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면 케이팝이 후발 독립 국가의 미국시장 진출을 보여주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케이팝의 진정성에는 국가적 자부심이 따라 붙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케이팝 팬덤과 해외 팬들 사이의 갈등 역시 커진다. 트랜스내셔널한 것은 케이팝이라는 문화상품인 것이다.

## 5 무해한 케이팝을 넘어서

BTS가 7주 연속으로 빌보드 차트 1위를 수성하자(2021.7.15. 현재) BTS의 성공과 문화적 다양성, 대안적 남성상을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개인의 즐거움보다 사회 공동체적 연대를 강조하고, 일탈 대신 음악을 통한 치유를 중시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해함”을 가진 아티스트가 등장했다는 찬사다.<sup>35</sup> 최근 발표한 신곡 「Permission to dance」는 국제수어를 안무에 등장시켜 화제가 된 바 있다. 미국사회에서도 “해로운 남성성에 맞서 도전했다”(에스콰이어), “남성성에 관한 엄격한 통념을 본능적으로 거부한다”(롤링스톤)와 같은 평가가 이어진다.<sup>36</sup>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케이팝의 규범적 남성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시선에서 바라보면, 아시아의 남성성은 대안적 남성성으로 의미부여될 수 있으나 케이팝의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케이팝 남성성의 ‘모델 시민’과 같은 성격은 전혀 새롭지도, 진보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케이팝 아이돌에서 힙합 아티스트가 된 박재범은 아이돌과 아티스트, 한국

34 정희준·김무진, 「민족주의의 진화: 스포츠, 그리고 상업적 민족주의의 탄생」, 『한국스포츠 사회학회지』 제24권 4호,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11, 101-115쪽.

35 양승준, 「BTS가 보여준 새 남성상… 맥도널드가 증명한 세계화 표준」, 『한국일보』, 2021. 6.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008440004328?did=NA>

36 이은호, 「‘케이팝’ 혐오 딛고… BTS가 제시한 대안적 남성상」, 『쿠키뉴스』 2021.7.13.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7120303>

계 미국인과 한국인, 케이팝과 힙합이라는 여러 경계의 접촉지대에 있다. 그는 “케이팝이 한국 대중문화 내 마초성이 소거된 ‘비남성성’의 지대라거나 전형적인 남성성이나 여성성에 귀속되지 않는 표현 방식을 갖는다는 평가<sup>37</sup>를 거스르는 존재다. 아이돌로서 박재범은 솔직함과 자유분방함, 정련되지 않음을 내세우는 개별성을 가진 존재로 케이팝 규범성을 위반했다. 하지만 그는 줄곧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수행했다. 이는 설화 사건 이후 한국에 복귀한 박재범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친구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는 진정성의 서사를 들고 나온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재범의 가사와 행보는 흑인 남성 주체의 피식민 상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 힙합의 남성성과 통하는 지점에 있다. 이는 그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성장했다는 점과도 맞물린다. 소수자로서 박재범은 BLM 운동이나 태국,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를 낸다. 소수자들의 다양성과 평등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발언이 케이팝 규범성과는 또 다시 충돌한다.

케이팝이 서구 사회에서 다양성을 표상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 케이팝 스타는 말할 수 없는 주체로 남아 있다. 케이팝 산업이 퀴어코드를 가시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반면, 케이팝 아이돌이 퀴어 의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퀴어 아티스트와 협업을 진행한다거나 퀴어 코드가 삽입된 뮤직비디오 등은 제작하지만, 팬덤이 퀴어문화축제에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는 케이팝이 상연하는 퀴어함이 상당 부분 무대 위에서만 허용된다는 데 있다. 즉 모델이 될 만하고, 무해하며, 규범적인 케이팝은 대안적 다양성을 표상한다기보다 헤게모니적 규범성의 장을 강화하고 유지시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37 박주연, 「케이팝과 퀴어가 무슨 관계냐고요?」, 『일다』, 2020.6.28., <http://www.ildaro.com/8770>

- 김민재, 「‘해투3’ 로꼬 “박재범이 2억 빚 청산해줬다… ‘감아’로 돈 다 갚아”」, 『아시아경제』, 2016.8.26.
- 김영대, 「아이돌 힙합의 이유」, 『아이돌로지』, 2014.8.12.
- 박재범, 『인스타일』 2010년 9월호.
- \_\_\_\_\_, 「ABOVE AND BEYOND」, 『W Korea』, 2015.8.17.
- \_\_\_\_\_, 「락네이션 최초의 아시아 아티스트」, 『하이프비스트』, 2018.5.28.
- 박주연, 「케이팝과 쿼어가 무슨 관계냐고요?」, 『일다』, 2020.6.28.
- 양승준, 「BTS가 보여준 새 남성상… 맥도널드가 증명한 세계화 표준」, 『한국일보』, 2021.6.12.
- 이은호, 「‘케이팝’ 혐오 딛고… BTS가 제시한 대안적 남성상」, 『쿠키뉴스』, 2021.7.13.
- 황혜진, 「박진영 밝힌 JYP 인성교육 “진실 성실 겸손 세 가지 가치 지켜야”」, 『뉴스엔』, 2017.11.29.

#### 단행본

- 김봉현, 『힙합: 블랙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는가』, 글항아리, 2014, 206-247쪽.
- 연혜원 기획, 『퀴어돌로지』, 오월의봄, 2021, 7-65쪽.
- bell hooks, *We real cool: Black men and masculinity*, Routledge, 2004, pp.1-14.
- Eve Kosofsky Sedgwick, *Between Me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pp.1-27.

#### 논문

- 권김현영, 「민족주의 이념논쟁과 후기 식민 남성성」, 『문화과학』 제49호, 문화과학, 2007, 39-54쪽.
- 김수아·홍종윤, 「“슬픈 랩스타”: 머니 스웨거와 진정성의 맥락화」, 『대중음악』 제15호, 한국대중음악학회, 2015, 13-14쪽.
- \_\_\_\_\_, 「한국 힙합에 나타난 루저 남성성 담론과 여성 혐오: 블랙넷 사례를 중심으로」, 『대중음악』 제18호, 한국대중음악학회, 2016, 60-99쪽.

- 김수아, 「남성 아이돌 스타의 남성성 재현과 성인 여성 팬덤의 소비 방식 구성」,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9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1, 5-38쪽.
- \_\_\_\_\_, 「소비자-팬덤과 팬덤의 문화 정치」, 『여성문학연구』 제5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0-48쪽.
- 김혜정, 「서구 속의 동아시아 남성성-영국에 거주하는 한국 남성 이민자들의 남성 정체성 연구」, 『공간과 사회』 제26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06, 220-252쪽.
- 류진희, 「팬픽: 동성(성)에 서사의 여성 공간」, 『여성문학연구』 제2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163-184쪽.
- 송화숙, 「대중음악에서의 진정성(Authenticity) 개념」, 『대중서사연구』 제21호, 대중서사학회, 2009, 345-370쪽.
- 이지행, 「서구미디어의 지배담론에 대한 방탄소년단 글로벌 팬덤의 대항담론적 실천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5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79-114쪽.
- 이혜수, 「한국 팬덤의 민족주의 정체성 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제22권 2호, 동양사회사상학회, 2019, 237-268쪽.
- 정민우, 「초/국적 시대 민족주의 정치학과 대중문화의 역학-‘재범 사건’의 의미 구성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18권 3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0, 35-70쪽.
- 정희준·김무진, 「민족주의의 진화: 스포츠, 그리고 상업적 민족주의의 탄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4권 4호,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11, 101-115쪽.

## Abstracts

Masculinities in K-Pop and the (Im)possibility of Transnationality

Heo Yoon

As K-pop has emerged as a representative cultural product of Korea, the masculinity that K-pop reproduces is being exported to the global market on behalf of Korea. The bodies of



K-pop idols, which are typically well-trained, disciplined, and skinny, are read as “queer” masculinity in the global market. However, Korean idols embody well-disciplined gender norms contained within the “queer” body. The story of former K-pop idol Jay Park also demonstrates the multiple trajectories of K-pop, which collided at the intersections of normality and queerness. The fact that Jay Park, who later returned to Korea, became a hip-hop artist featuring male solidarity and sincerity can be understood in conjunction with his identity as an Asian-American who grew up in the United States. Ethnic minorities are reborn as subjects who perform surplus hegemonic masculinity, which is successfully combined with masculine hip-hop narratives. As a minority, Jay Park’s actions have conflicted with the norms of the K-pop idol industry. He actively speaks about political issues such as the BLM movement and raises the subject of racism as a Korean American. This has caused several repercussions for Jay Park, as his outspokenness clashes with K-pop’s implicit norm of not talking about political issues. If K-pop is marketing to the global market that also plays the role of a kind of “model Asian,” then the time has come to critically assess such normality and the future path of the minority.

Key words: K-Pop, Masculinities, Hip Hop, Transnationality, Minority

본 논문은 2021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8월 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